

‘동탄 집값’에 놀란 수요자 영통으로 몰린다

규제지 포함·단기 급등 피로감에 힐스테이트광교 37.8% 증가 등 주간상승률 3배·올누적 7.85%↑ 대기업 배후·실거주 인프라 탄탄

“동탄 집값이 20억 원 이상으로 올라 가면서 인근 영통구 집값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영통구 집값 상승 추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최근 화성시 동탄구 등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발표한 가운데, 매수세가 수원시 영통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단기적인 집값 급등 현상에 정부 등의 관심이 지속되자 피로도를 느낀 거주자들이 대체 지역으로 주목,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가격은 (6일 기준) 전주 대비 1.19% 급등하며, 도 평균 상승률(0.23%)의 5배를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영통구는 지난달 29일 주차

(6월 23~29일) 0.41%의 상승률을 기록하다, 1.19%로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 또, 올해 누적 상승률은 7.85%로 동탄(14.46%)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집값 상승 현상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추가 규제지 발표 이후 생활권·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통구로 이동하는 ‘규제 피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특수로 동탄 지역 등에서 발생한 단기 집값 급등

피로감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통구 내 아파트들이 최고가

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통구 하동 소재 ‘힐스테이트광교’ 97㎡형의 경우 지난달 최저가인 12억5천500만 원에 거래되다, 이달 4일 17억3천만 원으로 약 37.8% 증가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어 이의동 소재 ‘자연앤자이(1단지)’ 116㎡형은 지속 16억 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7일 역대 최고가인 20억 원으로 거래됐다.

A씨는 “동탄 집값이 22억 원, 26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10억 원대인 영통구 집값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라며 “직주근접·교통 조건 등 단순한 가격 차익을 넘어 실거주·투자 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이주 흐름”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수원 영통구는 대기업 배후 자족도시로 교통·산업·생활 인프라가 정착돼 있어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반도체 특수 등으로 집값이 들쭉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정책·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 상승·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동행복권

Lotto6/45

<1232회>

1등 당첨번호

12 15 19 22 24 36

2등 보너스번호

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533,260,819(11개월)
2등	5개 + 보너스 숫자 일치	50,481,647
3등	5개 숫자 일치	1,556,40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수원상의 직업진로캠프 보고회 8개 직업계고 총5천150명 수료 “학생 적성·기업 이해하는 기회”

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가 10일 수원특례시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수원 직업진로캠프 총평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원 소재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교별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 올해 캠프를 통해선 신입생 1천757명, 2학년 1천686명, 3학년 1천707명 등 총 5천150명이 수료했다.

김재욱 수원상의 회장은 “이번 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과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수원상의도 학교와 지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건의 사항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캠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소하기자

‘이열치열’ 초복엔 가격도 맛도 삼계탕

도평균 1.7만원~10년새 5천원 ↑ 유통가, 1인분·밀키트 대거 출시

전통시장 재료 1인기준 8천800원 찹쌀가격 하락에 전년비 부담 뚫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을 웃도는 시대가 됐지만, 다른 보양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초복 대표 메뉴로 꼽힌다. 10년 사이 평균 가격이 5천 원가량 올랐으나 물가 대비 온 가족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기 회복을 위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서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식품·외식업계는 삼복 보양 시즌을 겨냥해 삼계탕 메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농협목우촌은 최근 프리미엄 간편식 ‘쌍화삼계탕’과 선물세트인 ‘쌍화삼계탕 보양세트(2개입)’를 출시했고, 이마트는 PB상품 브랜드 피코크를 통해 홍삼 브랜드 정관장과 협업한 ‘홍삼 전복 삼계탕’을 내놨다.

편의점 업계 세븐일레븐은 종합식품 기업 하림과 협업해 1~2인 가구를 겨냥한 ‘세븐셀렉트 영양반계탕’을, 이마트 24는 ‘통닭다리삼계탕’을 선보였다. 국밥 프랜차이즈 육수당의 경우, 여름 시즌 한정 누룽지반계탕(1만4천 원)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도 내 삼계탕 가격 추이를 보면, 1만 원대 중반부터 상황버섯과 능이버섯, 옻, 녹용 보양 식재료를 더한 메뉴는 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

삼계탕 가격 정보

4인 기준

(단위: 원)

품목	규격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 대비 변동률(%)	2022 대비 변동률(%)	
전통시장 (국산)	생닭	4마리(2kg)	18,000	19,200	16,000	18,000	18,000	-	-
	수삼	4뿌리小	5,000	5,000	5,000	5,000	5,000	-	-
	참살	4입(800g)	2,400	2,400	2,700	4,300	3,300	▼-23.3%	▲37.5%
	마늘	20알(50g)	500	500	500	600	600	-	▲20.0%
	밤	4알(50g)	440	560	560	560	560	-	▲27.3%
	대파	2대(300g)	1,000	1,200	1,500	1,800	1,800	-	▲80.0%
	육수용 약재	2병(200g)	4,000	6,000	6,000	6,000	6,000	-	▲50.0%
합 계			31,340	34,860	32,260	36,260	35,260	▼-2.8%	▲12.5%

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지역의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7천414 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명 삼계탕 전문점에선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면서 ‘금계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도내 평균 가격은 10년 전보다 39.55%, 2021년보다 22.04% 오르는 데 그쳐 외식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초복은 삼복 중 첫 번째인 복날로,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는 ‘복달임’ 풍습을 이어왔다.

60대 주부 정미란 씨는 “보양식하면 가장 먼저 삼계탕이 떠오른다. 다른 음식보다 부담 없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날이 더워지면 종종 찾는다”며 “조금 더워진 해도 비용도 아낄 겸 올하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끓여 가족들과 함께 기력을 보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복을 앞두고 복달임 메뉴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올해는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삼계탕을 요리해 먹어 외식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반응이 다수인 편이다.

전문 가격 조사기관인 새한국물가정보가 복 시즌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삼계탕(4인 기준)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3만5천260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분으로 환산 시 약 8천800원 수준이다.

이는 2kg 닭 4마리 1만8천 원, 찹쌀(800g) 3천300원, 육수용 약재 6천 원, 수삼 5천 원 등이 소요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찹쌀 가격이 23.3% 하락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기획조사팀장은 “최근에는 삼계탕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 제품도 1인분 기준 5천~9천 원 사이로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양식을 즐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연경기자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프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 기업에는 '다시 나아가길 희망'을 · 국가자산은 '더 큰 가치'로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가게재가지원

- 취약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출발기금



기업정상화지원

- 기업구조혁신펀드 · 자산매입후임대(S&LB)
- 회생·워크아웃기업 금융지원



국가자산가치제고

- 국유재산 관리·활용
- 국·공유재산 개발 · 온비드(OnBid)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만 60세 이상 개인

- 최대 1천만원 보상
- 보이스피싱 메신지피싱 보상
- 보험료 무료

신청방법



지원한 부채 받으세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직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부채 나눔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경기본부

무더위 날리며 보이스피싱 걱정도 훌훌

농협 경기본부, 부채 나눔 행사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지원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에서 '부채 나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본부는 더운 날씨 속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접이식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김성록 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기에 앞서 농협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금융소

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더위 쉼터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관내 207개소 모든 영업점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 이벤트도 함께 개최, 만 60세 이상 누구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NH온라인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연경기자